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 대 윤 의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차질없는 조성”

“유성복합터미널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신설차집관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지만 또 다른 정책 실패는 안됩니다.”



송 대 윤 의원

◎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춰 있던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약 160만 평 규모의 나노 · 반도체 국가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남부권 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큼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인근은 도안 2단계 · 3단계와 학하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으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치러질 서남부 스포츠 타운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한번 대전의 지역경제 부흥에 크게 기여할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환영하면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시민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몇 가지 현안사업과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도시개발과 함께 시작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대전시정의 핵심적인 체육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그럴싸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렇다할 만한 결과는 물론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미숙함만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지역스포츠인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지지부진했던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여러 난관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 핵심적인 해법을 제공해준 행사입니다.

본 의원도 2027년 8월 대전에서 개막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막식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러나 최근 공동유치 단체장들이 청남대에서 긴급회동을 추진해야 할 만큼 대회준비가 순탄치 않다는 부정적인 소식을 여러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조성 관련하여 지난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사전 부지 확보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라는 전제조건으로 76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 거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정 등 꽤나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부터는 100만 제곱미터까지의 그린벨트를 시장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국토부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2023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시작으로 2025년 1월에는 단지 조성공사 착공과 함께 1만 4,645㎡ 규모의 체육시설공사를 202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착공을 위한 사전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등 부가적인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는데 행정절차 과정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2027년 8월 1일에 개막하는 대회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염려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기 조성과 함께 관계 시설은 물론 교통인프라 조성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 못지않게 기반시설 조성이 중요한데 이 또한 여러 현안과 행정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들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대회 관계자는 물론 세계 각 국의 선수들이 한날한시에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유성IC에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까지의 길목은 대전에서도 상습정체 구간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남고속도로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현충원IC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IC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사

추진기간까지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며칠 전 발표된 교통정체구간 개선안에도 유성대로~화산교 구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절차라는 것이 계획된 일정대로 드라마틱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27년 8월 1일 개막에 맞춰 관련 종합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은 물론 관계 시설물까지 완공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주 경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남부권 교통계획, 특히 현충원IC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복합터미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시장님께서서는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실용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명품 여객 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유성복합터미널 건설계획을 여객수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전환하여 신속하게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의 변경안을 살펴보니 기존 터미널 부지를 분할하여 공공청사와 지원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기간은 당초계획보다 2년을 단축하여 2025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터미널 건설비용은 시 재정으로 460억 원을 투자하며 지원시설은 민간투자개발로 1,900억,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1,09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여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추진시기 및 어느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경된 계획안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두 곳 있습니다.

본 의원은 터미널에서 분할된 부지와 그 외의 지원시설에서 전환된 공공청사 부지 둘 중 한 곳은 유성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5년 완공시기에 맞춰 터미널을 비롯하여 공공청사, 지원시설, 공원 등 나머지 부지도 다 함께 건설되어야 중부권 거점 명품 터미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2025년에는 유성복합터미널 전체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성복합터미널과 함께 건설되는 BRT 연결도로도 더디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전하수처리장은 조성 당시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급격한 도시 확산으로 인해 현재 주변 지역은 시가화 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악취 집단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접수되었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노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가 전무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통해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구축은 물론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한 토지자원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전체 사업비 7,214억 원을 투입해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 용량은 하루 65만 세제곱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초고도하수처리기술 등 첨단공법을 도입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와 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으로 2022년 우리 시는 한화건설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은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시설공정과 신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이송하기 위해 신설되는 차집관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이전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와 공법 등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차집관로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발생된 하수가 누수 없이 안전하게 하수처리장까지 이송되기 위하여 차집관로 사업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간이 무려 10.9km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60만 톤 이상의 하수가 차집되어 하수처리장까지 흘러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집관로를 따라 하수가 유하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 없이 하수처리장까지 도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천변을 따라 차집관로는 PC박스와 불리는 콘크리트 사각관로를 매설하게 됩니다.

누수가 없기 위해서 PC박스 시공 시 내구성과 수밀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블록별 이음새 부분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체결해야 인접한 갑천으로 하수가 흘러들어가는 사고와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전 1·2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지금까지 기존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각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배출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 사고발생 시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어 차집관로의 부식 또는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차집관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복토 후에는 100년을 내다보고 사용되는 중장기적 시설물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후 신설 차집관로로 폐수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 교육청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발생한 친수 1·2구역 학교용지 반납 문제에 대해 제268회 정례회 때 질문하였습니다.

다행히 학교용지 확보 문제는 대전시로부터 무상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친수 1·2구역의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순 없지만 또 다른 정책 실패가 반복되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은 2022년 신설된 대전호수초등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대전교육청의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계획들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2,070세대의 입주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진행되지만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다닐 학교가 없습니다.

즉, 친수 1·2구역 학교 개교시점이 입주시기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2027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10월 입주예정인 친수 1구역 1,116세대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와 차량 위험에 노출된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환경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학교 설립 시에도 현재 원신흥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양우내안애레이크힐 아파트 500세대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1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녀야 할 학교는 어디인지에 대한 학생 수용계획 및 통학환경에 대한 교통안전대책과 향후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학교의 문제는 학부모, 시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항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측가능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의 책임행정과 시민, 학부모, 현장과의 소통을 요청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대운 의원님께서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및 유성복합터미널 변경,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장태산 휴양림 주변, 서구에 있었던 산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시다만 이상래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시고 또 직접 산불을 끄기 위해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셔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많은 시 의원님들과 이은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많은 분들, 또 민주당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서구의회 구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고 도와주시고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시청 공직자들 그리고 서구 등 5개 구의 많은 공직자들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 자원봉사연합회 소속의 많은 분들, 새마을부녀회, 방재단 여러분, 이런 많은 분들의, 봉사단체의 헌신으로 시민정신이 빛났던 3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장태산 휴양림을 보호할 수 있었고 또 가옥 한 채를 포함한 일부 손실이 있었습시다만 요양시설이나 개인주택에 대한 추가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태산 휴양림 주변 산불과 관련해서 헌신해 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대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운 의원님께서서는 평소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교통편의 증진 및 시민 안전 확보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개막식 일정에 맞춰 종합경기장, 다목적체육관과 관계 시설물까지 완공 가능한지 여부 및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총사업비 5,872억 원을 들여서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국내 최고의 복합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단지로 조성되게 됩니다.

약 2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는 개막식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하게 되고 축구, 경영, 다이빙 그리고 펜싱을 대전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완공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2단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3단계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4단계 토지보상 및 공사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공사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향후 체육시설 건립까지 추진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권 공동개최를 확보한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또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주 경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충원IC의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물어보셨는데요.

2027년 8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남부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밭대학교를 지나는 수통골에서 동서대로를 연결하는 곳에 현충원I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기재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중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발표돼서 이쪽 서남부권에 대한 추가 주택 문제나 교통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서 금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회 개막 전까지는 현충원 IC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하이패스 IC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해서 개막 전까지 개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유성IC부터 서대전IC까지 저희가 일부 계획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지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또는 지하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이패스 기능을 갖춘, 기능을 추가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진출입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져서 유성 지역, 유성IC 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흐름을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충원IC는 신속하게 2027년 7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공공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유성복합터미널이 벌써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현재 여러 여건상 기존의 계획가지고는 유성복합터미널을 2027년까지 사실은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 유성구민들이나 서남부권 시민들,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순수 터미널 기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성복합터미널은 애당초 계획을 당겨서 2025년까지 확실하게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시설 사업과 공공용지가 있습니다만 지원시설은 유성터미널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반사업자한테 매각을 안 하고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그 지역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내는 사업자한테 땅을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용적률이 낮아서 지금 현재로는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에 대한 전폭적인 확대를 해서 초고층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해보아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현재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시다만 사실 공공용지는 지금 당장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뽑은 용지는 아니고 공공용지를 예비적으로 확보해서 추가로 유성 지역에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든가 공공용지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공공용지를 뽑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시 재정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고요.

지난 2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민과 시민을 위한 공간 지원은 시설용지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고요.

공공용지 중에 일부 부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유성구민이나 대전시민들에게 유익하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최적으로 유성복합터미널이 활성화되고 또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유성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유성터미널 주변에 많은 활성화가 돼서 발전이 되는 방안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성터미널 완공시기에 맞춰서, 현재 공원, 유성보건소, 환승주차장, BRT 환승센터 완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행복주택까지 세세한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켜서 행복주택은 내년 2월쯤 입주를 목표로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유성복합터미널 전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적의 상태의 어떤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라서 갑천변에 신설되는 10.9km의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대전 1·2일반산업단지 폐수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의원님께서 전문가 수준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다고 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히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올 하반기에 착수해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마지막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차집관로는 PC박스 형태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해수의 염분이나 화학성분에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가 있는, 최소한 35MPa 정도 되는 강도가 있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차집관로 내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로 인한 콘크리트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건설 중으로 2024년에 완공하여 운영하면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임시저류, 후처리하므로 오염된 물이 하천이나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차집관로는 준공 후 30년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유지관리하도록 협약된 바 우리 시에서는 차집관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관리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대운 의원님께서서는 친수지구 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에 따른 학생 배치계획은 약 2천 세대의 학생 수가 당초 예측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주예정 학생 수를 조사하여 설립규모와 학생 배치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갑천 1·2구역 아파트의 학생들은 대전원신흥초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로 학생 배치 시 통학로 안전과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 학생들의 통학구역 조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구역 조정은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구역 내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에 통학구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는 대전원신흥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입주가 완료된 기존 아파트는 학교 설립규모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친수1초 개교 시 학교 설립규모와 해당 지역 학생의 적정배치를 고려하고 지역주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학부모,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학부모, 지역주민들과는 필요시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제언을 학교 설립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대윤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